

함평군, 현지 유통사와 손잡고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 나선다

'Food & Drinks Malaysia by SIAL' 박람회 참가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함평 농특산물의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Food & Drinks Malaysia by SIAL 2025(이하 FDM)' 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한국 농식품 최대 유통업체인 KMT Group(회장 이마태오)과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MT Group은 말레이시아 내 한국 농식품의 유통·물류·소매망을 광범위하게 보유한 선도 기업으로, 이번 협약이 함평 농특산물의 동남아 시장 진출하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는 ▲함평 농특산물의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 공동 유통망 구축 ▲현지 및

출형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협력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를 위한 연간 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일에는 현지 한국 식품 전문 유통업체 MK studio와 연간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동남아 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한편, FDM 박람회는 7월 1일부터 3일 까지 개최됐으며 전 세계 30개국에서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음료 박람회다.

함평군은 박람회 기간 단호박, ABC주스, 도라지베즙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소개하며 수출상담을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이상의 군수는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시식을 권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군수는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 'honorary reporters'와의 인터뷰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한 함평군 농특산물이 해외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제 시장 개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 군수는 박람회 기간 현지 한인마트(NH Pasarnita Mart)를 방문해 지역 김 수출업체인 맛나푸드㈜의 조미김 입점현장을 둘러보고 수출 성과를 축하하기도 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보성군, '농촌 재능 나눔 한마당' 성황리에 마무리 찾아가는 재능 나눔으로 하나 되는 농촌

보성군은 지난 3일 보성을 대야마를 강산 새마을경로당을 마지막으로 (사)보성군새마을회(회장 임영서)가 주관하는 '2025 농촌 재능 나눔 한마당'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벌교읍 낙성마을을 시작으로 12개 마을을 순회하며 진행됐으며, (사)보성군새마을회, 희망의 손봉사단, 보성군립군악단 등 7개 재능기부단체 소속 25여 명이 참여해 총 4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재능봉사 활동을 펼쳤다.

농촌 재능 나눔 한마당은 △보성군립군악단(감독 박춘맹) 국악하마당, △건강 체크, △복지상담, △손 마사지, △이미용, △메이크업, △인생 사진 한 컷 △칼같이 서비스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체험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보성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미숙)와 연계한 '순결 특목~할려 특목~ 행복한 보성만들기'사업의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체험은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2개 읍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대원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상담 및 접수하고 즉시 조치하는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였다.

보성군새마을회 임영서 회장은 "내년에도 올해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재능 나눔 한마당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공동체와 주민의 따뜻한 연결을 실천하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은 하반기에 함께하는 배움! 함께하는 나눔! 이라는 주제로 재능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인 '배움 나눔터'를 운영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민 참여 확대 및 봉사 네트워크 형성하고 자원봉사 활동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보성/김윤기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사)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하였다고 4일 밝혔다.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광역·시·군·구 구분 평가)으로 ▲시민행복도시 ▲혁신미래도시 ▲생

화순군,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도내 1위

명천화도시 3개 부문 88개 지표(광역·시·도 50개, 시·군·구 38개)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화순군은 3개 부문 모두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도내 1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시민행복도시 부문은 전

국 82개 군(군) 중 1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 같은 평가는 도시의 현재 삶의 질, 미래 대응 역량, 주민의 사회적 역량 등 모든 부문에서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3년간 변화와 도약을 위해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화순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진도군, 2025년 '다산안전대상' 수상

진도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행정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다산안전대상은 도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한 기관, 단체, 개인, 시군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통해 상을 수여하며, 안전 분야에서 전라남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진도군은 ▲안전문화운동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 평가 ▲재난예방사업, 총 4개의 평가 분야에 고른 평가를 받으며, 도내 22개 시군 중 종합 4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다산안전대상 수상에 따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체 4,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진도/오재영 기자



무안군, 디지털교과서 활용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관내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디지털교과서(메타버스)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일로초, 삼향동초, 현경초 등 3개교에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체험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도로명주소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학생들이 아바타를 활용해 가상공간 내에서 주소정보시설을 탐색하고 도로명주소의 구성원리를 파악하며 위치를 직접 찾아가는 등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주소 퀴즈를 통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무안군 제공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 관광 행정 발전 방안 연구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회(위원장 김철민)가 지난 2일과 3일 타 지자체 선진 사례를 나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 강진군 및 함평군 일대를 방문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선진지 견학이 나주시 주요 관광 행정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며 특히, '금성산 생태 물놀이장' 운영 방안 등에 적극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은 ▲대흥사, ▲4est수목원, ▲브이랜드 공원, ▲한국민화뮤지엄, ▲함평엑스포공원 등을 방문하여 나주시에 특색있는 주요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주/이명열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